오시는 길

- 자가용 이용시
  - 남부순환도로에서 봉천사거리(서울대입구역)에서 서울대 정문 방향으로
- 대중교통 이용시
  - 서울대입구역 3번출구 5511번, 5513번 법대 정류장에서 하차
  - 신림역 3번출구 5516번, 5518번 법대 정류장, 혹은 본부 앞에서 하차

(사)낙성대경제연구소
주소 : 151-827 서울시 관악구 봉천본동 933-6, 2층
전화 : 02-886-8186~7
팩스 : 02-873-5460

일본제국과 식민지: 지역간 통합과 격차

일 시 | 2011년 9월 24일(토) 오전10시~오후 5시 10분
장 소 |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지하1층 강당
주 최 | 낙성대경제연구소
후 원 | 한국연구재단

초청의 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북아 지역의 경제성장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붕괴된 일본경제의 급속한 부흥, 1960-70년대 이후 한국과 대만의 신흥공업국으로의 등장, 1990년대 이후 중국의 급속한 부상은 주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19세기 중엽 개항 당시로 눈을 돌리면 이들 지역은 서구에 크게 뒤처져 있었고, 식민지로 전락하거나 그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反轉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는 매우 흥미로운 역사연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낙성대경제연구소는 우리나라 역사통계를 정비하는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그 관심을 동북아 지역으로도 넓혀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해방 전 일본과 식민지간 생활수준 비교"라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성과의 일부를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비교 대상을 우선 당시의 일본제국으로 한정한 것은 자료상 이들 지역의 비교연구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별 국가 중심으로 이루어진 종래의 연구와 달리, 일본 · 조선 · 대만 · 만주의 각 지역을 상호 비교하고, 이들 지역의 경제적 통합과 격차의 실태를 보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이며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들 지역의 역사통계를 비교함으로써 새롭게 제기되는 흥미로운 사실 또한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이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석과 더불어 엄한 질정을 부탁드립니다.

낙성대경제연구소 소장
김낙년 드림

행사일정

등록(10:00~10:10) 및 개회(10:10~10:20)

개회사: 김낙년(낙성대경제연구소 소장)

제 I 부 10:20~12:00 사회: 김두얼(한국개발연구원)

1. 일본의 물가와 임금 1900-39
   발표: 김낙년(동국대) · 조영준(서울대)
   토론: 조성원(고려대)
2. 대만의 임금 구조와 수준, 1902-42
   발표: 이우연(낙성대경제연구소)
   토론: 문명기(한양대)

중식: 12:00 ~ 13:30

제 II 부 13:30~17:10 사회: 박기주(성신여대)

3. 동아시아 철도업의 총요소생산성 추계 및 비교
   발표: 임채성(서울대)
   토론: 홍제환(서울대)
4. 20세기 전반 한국 · 일본 · 대만에서의 회사의 성장
   발표: 박이택(고려대)
   토론: 이상철(성공회대)

휴식 15:10~15:30

5. 개항기-식민지기 한 · 일간 이자율격차 분석
   발표: 김대현(서울대) / 토론: 이명휘(이화여대)
6. Divergence within the Japanese Empire
   발표: 차명수(영남대) / 토론: 정진성(한국방송대)